

# 신합리주의 건축의 도시 맥락적 해석과 수용방식에 관한 연구

이선혜<sup>1</sup>, 송대호<sup>1\*</sup>  
<sup>1</sup>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A Study on the Urban Contextual Interpretation and Admitting Methods in Neo-Rationalism

Seon-Hye, Lee<sup>1</sup> and Dae-Ho So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신합리주의가 불러일으킨 도시와 유형의 관련성은 현대의 도시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자주 제기되는 주제이며, 필수적인 개념이자 방법론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이상학적인 형태와 단일한 이미지로만 인식되고 다루어졌던 신합리주의 건축을 도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신합리주의 건축가들의 유형학적 건축이론 및 작품분석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해석개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수용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신합리주의 건축의 도시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relation of City and type caused by Neo-Rationalism often posed a subject in the modern urban architectural design and is treated by essential concept and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at Neo-Rationalism architecture recognized and treated by metaphysical form and singular image examined on the urban viewpoint. In other words, interpretation concept of city and architecture considered through typological architectural theory and work analysis of Neo-Rationalism architect. Accordingly, the urban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Neo-Rationalism architecture were aimed to analyze by examining the acceptance mode.

**key Words** : Neo-Rationalism, Typology, Urban Contex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알도 로시의 '도시의 건축(Architettura della Citta, 1966)' 출간 이후, 알도 로시의 제안은 1970년대의 합리주의기 동안 이탈리아에서 신합리주의로 발전한다[1]. 이후 80년대 유럽 전역에 확대된 신합리주의는 단순히 이탈리아 합리주의(Italian Rationalism)를 계승하거나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모더니즘으로 파괴된 유럽 각국의 고도에 존재하는 장소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전하고 고전과 근대성의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조직을 기반으로 도시 형태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건축 유형학에

의한 도시 유추를 추구한 건축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유럽에서 도시와 유형학을 발전시킨 신합리주의는 이미지에 몰두한 미국의 탈근대 건축으로 인하여 도시적 측면들이 간과되고 왜곡되어 평가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재평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학에 대한 재인식은 근대건축 운동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 건축형태의 자율적인 의미의 중요성, 도시의 장소적 맥락을 중시하는 건축적 사고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2]. 즉, 신합리주의가 불러일으킨 도시와 유형의 관련성은 현대의 도시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자주 제기되는 주제이며, 필수적인 개념이자 방법론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K-2012-78).

\*Corresponding Author : Dae-Ho So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el: +82-10-7209-3503 email: dhsong@pknu.ac.kr

Received January 21, 2013

Revised February 4, 2013

Accepted February 6, 2013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형이상학적인 형태와 단일한 이미지로만 인식되고 다루어졌던 신헌리주의 건축을 도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신헌리주의 건축가들의 유형학적 건축이론 및 작품분석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해석개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수용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신헌리주의 건축의 도시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시기적으로는 신헌리주의가 네오 모더니즘이 전개되기 전까지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의 한 갈래로서 활발한 전개를 보여주는 1960~1980년대로 한정하였으며, 지리적으로는 유럽을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이것은 신헌리주의 건축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생되었으나 그 지리적 범위를 이탈리아로만 한정시켜서는 역사적 연속성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유럽의 신헌리주의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건축가로는 신헌리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알도 로시(Aldo Rossi, 1931-1997), 크리어 형제(Rob Krier, 1938- & Leon Krier, 1946-), 오스왈드 마티아스 옹거스(Oswald Matias Ungers, 1926-2007)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유형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도시를 해석하고 이러한 개념과 더불어 건축유형을 적극적으로 설계과정에 도입한 건축가들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적 맥락이 유형학적 사고와 접목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헌리주의 건축의 형성배경을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둘째, 신헌리주의 건축가들의 도시 맥락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와 건축에 관한 해석적 사고를 살펴본다. 셋째, 작품분석을 통해 도시적 특성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유형 요소와 건축적 수용방식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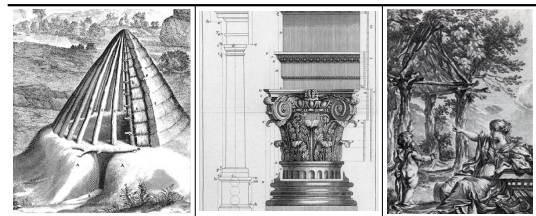
## 2. 신헌리주의 건축의 형성 및 영향

### 2.1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

르네상스의 인간주의와 이성주의가 육성한 과학정신은 문예부흥, 종교개혁, 활자의 발명, 프랑크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의 진보 등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18세기에 이르러서 이성에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계몽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계몽주의 사상은 이성을 중심으로 추론함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본주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계몽주의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찾는 접근 방식과 상설

된 장소의 회복은 신헌리주의자들이 개별건축의 필요성과 현실성의 기준을 도시에 부여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계몽주의는 지성혁명을 통해 건축을 창작에서 해석의 단계로 변화시켰다[3]. 즉, 계몽주의를 거쳐 18세기에 건축을 해석하는 시기가 확장되면서 그 결과 고전에 대한 재해석으로 등장한다.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개혁운동인 이신론이 종교운동에 머물지 않고, 클로드 페로(Claude Perrault)의 ‘전원 오두막’이나, 로지에(Laugier)의 ‘원시 오두막’을 통해 네 개의 기둥, 바닥, 보,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근원적인 구조체를 그리스 고전주의와 고딕 건축의 정수를 구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두 양식을 아우르는 근원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의 전개는 건축구성에서 있어 형태의 기준이 되는 유형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신헌리주의 건축의 유형학적 방법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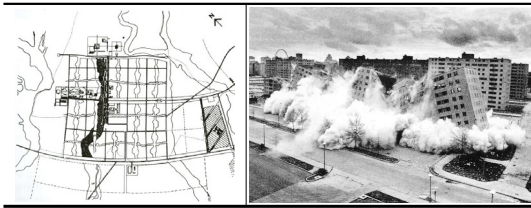


Primitive housing The corinthian order Primitive hut  
(Claude Perrault, 1673) : Classic decoration (Laugier, 1753) and structure

[Fig. 1] The types of classic reinterpretation

### 2.2 근대 도시환경의 변화

신헌리주의의 형성은 시대적으로 근대 도시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산업혁명의 필연적 결과로 도시의 규모는 확대되었고, 인구의 증가와 주택문제가 심화되었다. 산업혁명기의 공업도시들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특히, 1832년에는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면서 계층의 구분 없이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4].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던 도시 문제는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심화되어 규모면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 개념과 토니 가르니에(T. Garnier)의 ‘공업도시계획안’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근대건축운동과 함께 전개되었다. 이것은 투기 현상과 함께 도시미화 사업과 도시확대 사업이 광대하게 나타나면서 고층화된 일자형 배열은 1930년대 이후 유럽의 대도시 주변을 주도하였다.



The Chandigarh plan in India (Le Corbusier, 1950) 'Pruitt-Igoe housing complex (1954-1972)

[Fig. 2] The changes of modern urban environment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도시의 생활패턴을 파괴하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큰 사회병리적인 대가를 우려하는 비판들을 받게 된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72년에는 세인트 루이스의 ‘프루트 아이고(Pruitt-Igoe) 주거단지’가 계속되는 슬럼화로 인해 폭파되어 해체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의 도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신합리주의자들은 공동체의 해체가 주거의 유형적 문제에 있음을 재발견하게 된다.

### 2.3 1920~30년대의 합리주의의 영향

신합리주의의 건축적 배경은 1920년대 초기 합리주의와 1930년대 이탈리아 합리주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합리주의는 1920년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에서 소수의 이상주의자들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5]. 현실의 모든 문제가 이성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된 합리주의는 아돌프 루스(Adolf Loos)의 ‘장식은 죄악’이라는 개념으로 잘 표현되었듯이 건축의 기능, 형태, 그리고 구조의 논리적 필연성과 합목적성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초 형식적이고 장식적인 개념에 대한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지적이고 심미적인 혁명에 이른 합리주의 건축운동은 현대건축의 상업적인 취향에 대한 의존을 비판했던 신합리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발생적 배경이 이탈리아인 신합리주의는 1930년대 이탈리아 합리주의에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고전적 전통이 있어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양상을 가졌던 이탈리아 합리주의는 합리주의 건축의 특성인 기능에 대한 명료함, 유용하고 경제적인 성격의 수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건축적으로 이탈리아 특유의 고전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쥬세페 테라니(Giuseppe Terragni)의 작품에서 잘 드러나듯이, 전통의 재해석과 고전건축의 근대적 수용에 비중을 두었던 이탈리아 합리주의는 근대건축의 몰락 이후의

새로운 건축을 모색하던 현대 건축가들에게 건축에서 역사성과 장소성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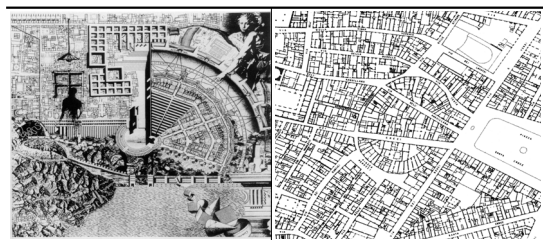
Loose House(Adolf Loos, Vienna, 1909-11) Casa del Fascio(Giuseppe Terragni, Como, 1932)

[Fig. 3] The Italian Rationalism

## 3. 도시와 건축의 해석 개념

### 3.1 알도 로시

이탈리아 신합리주의 건축의 대표 주자인 알도 로시는 건축의 시작을 강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이탈리아 도시에 두고 있다. 그는 그의 대표 저서인 ‘도시의 건축’에서 도시와 건축을 도시적 형성물 이론, 도시를 거대한 인공물과 동일시하는 관점, 도시를 기본요소(공공영역)와 주거지역으로 분류화로 설명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알도 로시는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두 가지 양상으로 보았다[6]. 첫 번째는 도시를 시간과 더불어 성장한 복합적인 건축작품으로 이해되는 거대한 인공물로 파악한다. 두 번째는 도시의 형태에 의해 특성화된 도시적 형성물과 도시의 형태 자체를 구성하는 건축물로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양상에서 도시의 형태는 유형학적 건축으로 요약되며, 건축의 유형을 바로 도시의 형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알도 로시의 도시건축에 대한 사고를 알 수 있다.



Citta Analoga (Aldo Rossi, 1976) The typological measured drwanig(Firenze S. Croce)

[Fig. 4] Aldo Rossi's urban studies

알도 로시는 도시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도시평면의 영

속성을 언어에서 나타나는 영속요소의 의미와 비교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도시적 형성물의 영속성과 변형과정의 복합성을 통해 어떻게 도시연구가 언어학 연구와 유사한지 주목하였다[6]. 도시적 형성물이 건축 자체만으로 평가될 경우, 결국 양식, 즉 형태만을 언급하게 되지만 언어학적으로 도시의 형태와 건축의 유형을 접근한다면 현실의 집단적·지속적 형태를 반복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추의 도시이론은 구성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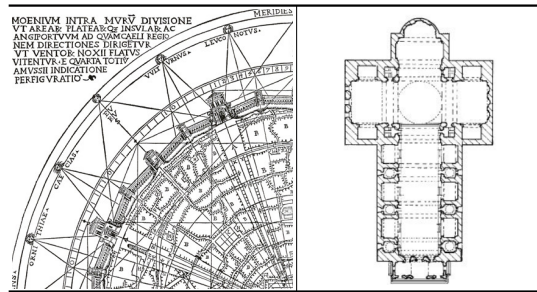
또한, 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그렇게 때문에 도시를 도시 구성원의 집단적 기억이 응집되어 있는 장소로 파악한다. 더불어 도시는 시간이 축적되어 구성되며, 이런 이유로 도시의 형태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건축설계란 도시의 형태를 분석하여, 유형을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건축은 단순히 기능과 역사를 의미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도시의 형태적 질서를 규정하고 공공공의 영역으로서 장소를 성립시켜주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는 파노바 재판소를 통해 도시적 형성물은 건물이 수용하였던 기능의 다양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가능하고(개별성), 도시에 대한 인상과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건물의 형태이며(집합성), 이러한 형태는 질료보다 비중이 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조정된 형태에서 비롯한다(복합성)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3.2 마티아스 웅거스

O. M. 웅거스는 건축학적 수단에 의해 구성된 도시성, 그리고 전적으로 도시적인 건축의 발달을 그의 작품과 이론에서 다루어 왔다. 웅거스는 비유적인 사고로부터 도시적인 건축설계학을 발전시킨다. 웅거스가 생각하는 건축과 도시계획의 상호 보완적인 개념은 도시가 사건의 조합이자 파편과 조각들의 집합체로 인식하는데[7]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 그는 건축과 도시계획은 나아가 서로 조건 짓는 한 쌍의 유사한 현상으로 파악했다. 웅거스의 이러한 사고는 비트루비우스(Vitruvius)와 알베르티(Alberti)의 축소판 도시로서의 집과 대형 집으로서의 도시라는 비유가 전승된 것[8]으로 간주된다.

웅거스는 건축이란 무엇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여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새롭게 경험하고, 재발견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화적 영역에서 전통적인 것이 변화를 겪고 다른 형태로 계속 발전할 때만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유형학적 의존성과 연관성 안

에서 사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Vitruvius's Ideal City (Cesare Cesariano, 1521) Alberti's Sant' Andrea drawings(Mantua, 1472)

[Fig. 5] The microcosm city

웅거스의 유형학적 사고는 도시에서 연속되는 기본형을 해석하여 주위 환경에 따라 유형학적 연관성 속에서 형태의 다양성을 확대한 것으로 도시가 전개한 건축의 유형학적 사고의 접근과 본질상 매우 유사성을 가진다. 이는 도시와의 상호 보완적인 개념 속에서 파악한 결과이며 이 때, 그 지역의 장소의 혼(Genius Loci)에 대한 기억과 반영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또한, 웅거스는 '보다'를 단순히 시각적 수용행위가 아니라, 해석학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형태학, 비유의 도시(Morphologie : City Metaphors, 1982)'에서 자연과 일상, 그리고 기술 등에서 얻은 서로 극히 다른 형태들을 도시 풍경과 도시설계의 사진들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여기서 웅거스는 근대의 '기계'나 '도구'적 시선이 아니라, 도시적 '비유'의 풍경을 통해 다양한 유형학적 정황을 읽어낸다. 즉, '도시 속의 도시', '정원 속의 도시', '도시 정원', '도시 빌라', '도시 바다', '도시 군도' 등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림들'을 연결시켜서 모순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도시'라는 주제로 형상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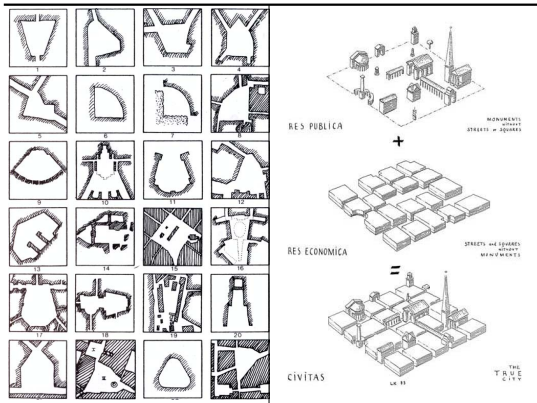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웅거스는 밀집된 블록구조에 이르는 도시의 지형학에서부터 자유로운 풍경의 형상화까지 그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론을 지속적으로 유형학을 통해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 3.3 크리어 형제

크리어 형제는 상실된 도시조직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형의 개념을 도시 형태론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접근하는 건축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환경적 형태를 만드는 오픈 스페이스의 유형을 고찰하여 가로와 광장을 통해 황폐해진 도시 구조에 생명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이미지와 발언은 모호한 18세기의

분위기와 수공예 시대를 향한 다소 비실용적인 향수로 평가 받았으나[9], 공간의 유형적 근간을 도시에 두고 있고 장소적 이미지의 회복을 위해 도시공간의 변형적 사용을 시도하여 근대 이전의 절대적인 고전과 차이가 있다.

롭 크리어의 주요 목표는 도시 안에 명확한 분절공간을 재설치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책 ‘도시공간(Stadsraum in Theories und Praxis, 1975)’에 광장과 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의 유형과 그 변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도시공간의 내부 - 외부공간이라는 양극성과 건축과 사회적 구조의 동일성을 전제로 도시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역할과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주장하였다.



The typological analysis of The design systems of urban space  
(Rob Krier, 1979) (Leon Krier, 2009)

[Fig. 6] The types of urban space and transformational systems

한편, 그의 동생 레온 크리어의 목표는 모더니즘에 의해 밀려났던 거의 모든 과거의 도시적 형태를 부활시키며 현대의 도시구조와 결합시키려는 데 있었다. 기존 도시에서의 각종 모뉴먼트의 배치, 동선체계를 충분히 참작하여 기존 맥락에 새로운 계획을 종합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준다. 레온 크리어는 확증된 문화적 전통과 역사의 바깥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사고는 건물과 공공공간의 유형학적 질서는 사회와 그 제도들이 현실성을 정립하게 되는 조직적 중심이 된다는 관점[10]을 바탕으로 한다.

이상으로 신합리주의 건축가들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해석적 관점을 요약하면, 근대건축에 대해 비판적 수정과 도시와 역사에 대한 재해석 또는 재발견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Table 1] The city of Neo-Rationalism and concept of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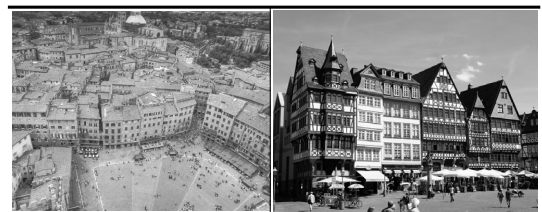
Classification	Aldo Rossi	O.M.Ungers	Rob & Leon Krier
Urban Concept	General Agglomeration	A combination of Events	Agglomerated Life
Urban interpretation	Urban morphology	Morphological typology	Spatial typology
Urban Component	Public space Residential Area	Urban Landscape Block structure	Square Street

그들은 도시를 복합적인 구조로 인식하였으며, 유형학을 통해 도시의 건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효하고, 사람이 도시를 인식하고 기억하는데 공공영역과 공공건축물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신합리주의자들의 그러한 관점은 역사에 대한 관심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으로써 얻어 질 수 있었으며, 전통적 도시를 이해함에 있어 형식적 연속성과 구조적 연속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실증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 4. 도시 맥락적 특성에 따른 수용방식

##### 4.1 도시조직(Fabric)의 재현성

도심에서의 활동들은 모두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인간 행위의 유형들은 양쪽 모두 유사하다. 그 결과로 모든 시대에 걸쳐, 공공공간을 구성되는 방법은 사적인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를 인식한 신합리주의자들은 공간적 형태에 있어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건축 안과 밖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도시적 삶을 영속시키는 도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형태학의 일차적 구성요소를 도시공간으로 규정하고 전통 도시공간 유형을 건축화하는 작업을 통해 도시의 전통적 조직(Fabric)을 보존하려는 경향[11]으로 나타난다.



Pizza del Campo and access road(Siena) Romerberg and timber house(Frankfurt)

[Fig. 7]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fabric

알도 로시는 세그라테(Segrate) 시청사 광장과 분수(1965)에서 부지 주변에 벽을 둘러서 광장을 폐쇄시키거나 파그나노 올로나(Fagnano Olona)의 초등학교(1976)에서 중앙에 중정을 광장처럼 전개하였다. 또한 성 카탈도(San Cataldo)의 묘지계획(1976)에서 역시, 인접 블록의 구조를 회랑과 광장으로 재현함으로써 무대, 집회, 강의의 장소로서[12] 작은 도시개념을 실현하였다.

웅거스는 ‘루즈벨트 섬 현상설계(1975)’에서 전통적인 블록에 따른 거주시설을 구상하거나 독일 건축박물관(1984)에서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을 경험하도록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속의 도시’, ‘집 속의 집’을 구현하였다. 또한 ‘베를린 호텔 현상설계(1977)’ 및 ‘성 모르스브로 이히 박물관 설계(1984)’ 역시 원형 또는 타원형의 외부 공간적 유형을 내부공간에서 재구축하였다.

레온 크리어는 ‘로얄 민트 스퀘어 주거단지 현상설계(1973)’에서 대지의 조직을 정의하는 부두의 철도 형상인 대각선[13]으로 가로와 광장을 구현함으로써 도시의 응집력을 부여하고 중정형 도시건축의 재생을 의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존 도시조직의 재현은 공간유형을 통해 도시공간과 건물간의 상호작용으로 발견되어 인간의 도시적 삶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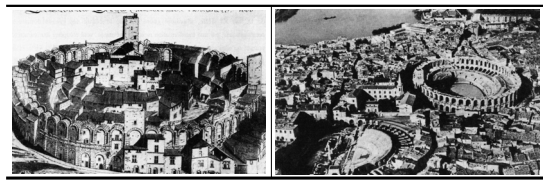


The Elementary School(Fagnano Olona, 1976)      German Architecture Museum(1975)      Royal mint square Complex(1973)

[Fig. 8] The space types about reappearing on original urban organization

#### 4.2 건축구성의 도시적 적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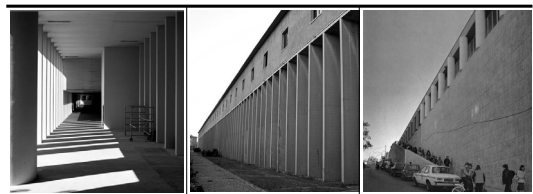
프랑스의 아를(Arles)에서는 로마 원형극장이 요새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포르투갈의 도시 빌라 비코사(Vila Vicosa)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계획안 또는 변천사들은 과거의 도시적 요소였던 건축물이 외부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도시의 정확한 범위와 도시경관을 구성하며 도시로 발전됨을 보여준다[6]. 이처럼 과거의 공공영역이었던 건축물이 도시로 발전하는 여러 유럽도시의 사례는 건축유형이 도시로 인식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The print of Rome amphitheater(1686)      The rehabilitated aerial photograph

[Fig. 9] The Rome amphitheater of Ar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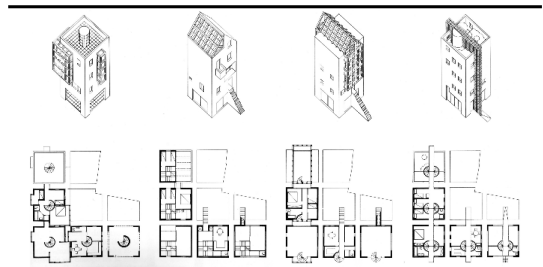
한편, 알도 로시는 갈라라테세(Gallaratese) 지구의 집합주택(1973) 및 성 카탈도의 묘지계획(1976)에서 100미터 이상의 직선회랑을 통해 기둥의 반복적인 연출은 도시의 풍경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산 사바(San Sabba) 지역의 트리에스티(Trieste) 중학교(1969)는 학교로 진입하는 외부계단이 언덕길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일렬로 늘어진 원주와 함께 가로를 구성하고 있다.



Gallaratese Apartment(1973)      Cemetery of San Cataldo(1976)      Trieste middle school(1969)

[Fig. 10] The architectural composition of urban landscape

웅거스는 ‘리터가 주택설계(1976)’에서 동일한 기본형식을 토대로 13종류의 주택을 선택사양으로 만들고 조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리터가의 기준에 존재하던 폐쇄적 외형과 개별적인 건축구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신헌리주의자들이 사용한 환원된 건축유형의 반복적 구성은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도시경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크리어 형제는 단일공간을 도시적으로 조직하기보다 집합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장소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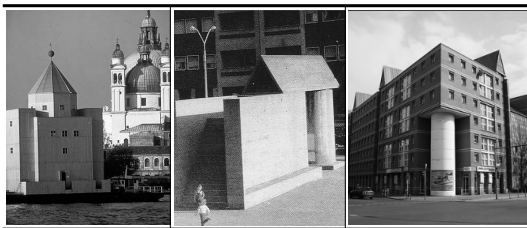


[Fig. 11] The housing design of Ritterstrasse

### 4.3 건축요소의 기념비성

신합리주의 건축가들의 건축요소는 의미적 특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의 기억과 연계되는 공간이나 형태에 근거를 두며, 도시적 건축이 가지는 연속성의 연장선으로 구축한 것이다. 신합리주의 건축의 수법은 대중주의의 역사 참조 방식과 유사하나 대중주의가 대중과의 교감을 위한 코드로 형태를 참조한 반면, 신합리주의는 건축 그 자체에 도시적 사실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징적 유형을 참조하고자 하였다.

알도 로시의 일시적인 축제용 구조물들 중 하나인 ‘베니스 세계 극장(1979)’은 16세기 이래로 공적 행사와 축제를 위해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온 베니스 풍의 이동극장을 유형학적으로 참조하여 경험과 장소성의 재생을 통해 역사적 연속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그라테 시청사 광장과 분수(1965)’에서는 광장 모서리에 건물 외부와 같은 원통형 요소를 배치하고 기념비에는 삼각형과 원주의 입방체로 조형하였고, 베를린의 IBA 주택(1987)에는 거대한 원기둥을 가로가 교차하는 위치에 배치하였다. 이처럼 로시가 사용한 원기둥, 굴뚝, 아치, 삼각지붕 등의 건축적 유형들은 도시에 대한 상징적 공간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도시를 의미하는 상징 기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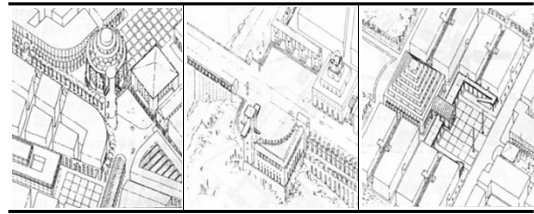


World theater (Venezia, 1979)    City Hall square in Segrate(1965)    IBA House in Berlin(1987)

[Fig. 12] The monumental symbolism

레온 크리어의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재건설을 위한 계획(1978)’은 고전적인 도시구조에서 오래된 것과 새 것, 높음과 낮음, 다양한 재료, 색, 질감이 연결되기 위한 원칙을 끌어내었다[5]. 크리어의 이러한 접근은 신고전주의적 경향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지속적 커뮤니티가 필요한 곳에 가로와 광장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기념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신합리주의자들의 도시 맥락적 해석을 통한 접근방식은 건축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과 도시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언어학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Fig. 13] The reconstruction plan of Luxemburg

즉, 광장, 가로, 블록 등의 도시 공간적 요소는 건축공간 안에서 폐쇄 또는 재현의 방식으로 도시조직을 구현하고, 벽, 기둥, 계단 등의 건축적 요소들의 반복적 구성을 통해 도시의 일부를 연상시킨다. 또한 굴뚝, 삼각지붕, 개구부와 같은 요소들은 기하학적 형태나 대칭적 배치를 통해 상징적, 역사적 공간을 회상시키고 있다.

[Table 2] Urban-contextual admitting methods

Urban-contextual feature	Typical elements	Construction method
Reproducibility of Urban fabric	Square, Street, Block	Closure, Reappearance
Urban applicability	Wall, Column, Stair	Repetition, Association
Monumentality of Architectural elements	Chimney, A peaked roof, An Opening	Symmetry, Symbolic

## 5. 결론

본 연구는 신합리주의 건축의 도시적 맥락 형성배경과 함께 유형학적 건축이론 및 작품분석을 통해 신합리주의 건축이 수용하고자 한 도시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합리주의 건축의 유형학적 접근은 근본을 도시에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계몽주의 시기의 자연의 이상과 모더니즘 시기의 산업적 생산의 양식에 의해 도출된 유형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한 차이는 역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단순히 절대적인 회귀나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기호와 결정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근거이자 도시의 수용되어야 할 맥락으로 보는 관점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신합리주의의 도시 맥락적 수용은 도시와 건축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도시적 특성과 언어학적 방식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방식은 도시조직의 재현성, 건축구성의 도시적 적용성, 건축요소의 기념비성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었으며, 추상적인 장소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조직과 기념비적 건축을 유형학적 건축언어로 환원시키고 이를 조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이러한 신헌리주의 건축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도시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유형학적 접근방식은 급속히 파편화되어 가는 현대도시에서 기존 도시조직을 재현하고 장소성을 재생하는 도시 맥락적 사고의 기틀을 제공한다. 즉, 기존의 프로그램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부족했던 도시환경에 적합한 물리적 구축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함께 확대되는 건축의 대형화 문제에서 요구되는 공공영역 형성의 측면에서도 참조 가능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Yim, Seock-Jae, Meet the architecture and art, from 1945 to 2000, the Humanists, p.111, 2006.
- [2] Gil, Seong-Ho, Modern architectural thinking Theory, Migunsa, p.97, 1997.
- [3] Yim, Seock-Jae, NaverCast: Western Architecture, Published: 2011. 7. 20([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1&contents\\_id=5736&leafId=121](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1&contents_id=5736&leafId=121)).
- [4] Son, Se-Gwan, The History of Urban Housing, Youlhwadang, pp.224-228, 2000.
- [5] Roger Trancik, Lee, Kang-Up, Theory, history, methodology of urban space design, p.21, p.119, 1992.
- [6] Aldo Rossi, Oh, Gyeong-Geun, Architecture of the city, p.49, p.37, p.165, 2003.
- [7] Tom Avermaete 2 others, Kwon, Young-Min, architectural perspective for architectural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p.313, 2011(Original Source: O. M. Ungers, Lotus international, pp.4-11, 1979).
- [8] Kim Sung-Hong, The new imaginative of Urban Architecture, Hyeonamsa, p.214, 2009.
- [9] William. J .R. Curtis, Gang, Byeong-Geun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since the 1900s II, Hwayoungsa, p.823, 2006.
- [10] Tom Avermaete 2 others, Kwon, Young-Min, architectural perspective for architectural modernity and the public sphere, p.217, 2011(Original Source: Leon Krier, Architectural Design 4, pp.218-221, 1978).
- [11] Gwak, Dong-Hwa, A Study on urban theory and architectural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of Neo-Rationalism, Hongik University, Master's Thesis, p.79, 1995.

[12] Aldo Rossi, Mun, Chang-Seok Station, A+U architecture and urban: Aldo Rossi, Tae-rim Press, p.160, 1989.

[13] "The geometry of the docks railway has defined the fabric of the site; it was logical, therefore, to use the diagonal with a redefined content."(Andreas Papadakis, Leon Krier : houses, palaces, cities, AD Editions, p.28, 1984).

### 이 선 혜(Seon-Hye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건축학사)
- 2013년 2월 :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학과(석사과정)

<관심분야>

건축설계, 도시역사 및 이론

### 송 대 호(Dae-Ho Song)

[정회원]



- 1994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석사)
- 1999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박사)
- 2000년 3월 ~ 2010년 2월 :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설계, 도시건축, 경관계획